

## 現代文明의 趨向(2)

韓稚振

### 二, 文明의 性質

文明은 무엇인가? 文明은 生活調節의 內的, 外的 形式이다. 即 生活의 形式의 制度가 文明이라한다. 이럼으로 文明은 外意에 잇서서는 具組의 與型이다. 內意로써의 文明은 生命의 動的 流鑄가 그것이다. 이 流鑄의 作用的 形式이 우리가 말하는 外的 具組, 즉 制度다. 이 制度는 文明의 源泉의 分類와 가티 二種으로 나누어 본다.

一, 本能的 制度이니 이는 盲目的으로 生命 그대로의 外的 表現이다. 情的 表現이다. 그러나 이 制度는 純朴하니만큼 無能的 無變通의인 것이다. 固定化한 化石과 같다. 變通性이 別無하다. 狹아서 個體的이다. 舊守的이요, 現實 滿足의이다. 이는 大體로써의 東洋文明을 말함이라 하겠다. 不然한 變動的 西洋文明이 東洋에 侵入하매 化石의 文明인 東洋것은 沒落하고 말었다. 새것이 드러올 때에 舊物은 반드시 排斥될 것은 免치 못할 現狀이다.

二, 理性的 制度는 意識的, 그러니까 計劃的으로 生命을 流通식힌것의 形會이다. 性的 制度는 直接 表現으로하면 理性的 制度는 間接的 表現이다. 이 間接的 表現! 實로 現代文明의 骨髓는 여기에 있다. 마티 한길 가튼 流轉에 다가 理性은 臨時的 休暇所를 設立하여 그 流露를 더 一層 有効的이고 有勢하게 만드려 준 것이다. 이것을 例하여 說明하면 原始人이나 牛馬 等은 敵을 對하매 天然的 機具, 즉 手足을 가지고 抗拒하지만은 現代人은 間接的 手段인 銃劍을 가지고 싸우는 것 가튼 것이 그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物質文明과 精神文明의 區別을 한다. 그러나 이 分別은 不必要하다. 兩者는 서로 離別치 못할 並行的 關係를 가지고 있다. 所謂 物質文明이란 것은 活流하고 精神의 外界化한 固體狀이다. 內的生命의 發作이 外的 形式으로 表現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物質文明이다. 그런데 內的 生命의 本□은 外界化, 즉 發表하는 것이 그의 必然的 勢向이다. 함으로 內的 生命은 內的 生命 그대로만 잇고 外的 形式은 外的 形式 그대로만 갈라 獨立하여야 잇지 않는다. 언제든지 內的 活流가 잇스면 거기에 依하여 外的 表現이 있다.

이 表現은 그 流露의 必然한 勢다.

勿論 그 內的 活流의 生命은 그대로 全部를 一時에 表現은 하지 않는 듯하다. 萬一 全部가 表現된다하면 그새에 가서는 그 生命은 力盡하여 死滅停止되고만다. 그런데 이 內的 活流는 情的이엿슬 새에는 즉 除外的이엿슬 새에는 若許한 期間을 一生으로하고 包有한 能力을 漸次 發顯하다가는 그 精力이 盡하면 消滅하지 안으면 안된다. 그러나 文明이 理性的이 될 새에는 즉 內外를 打開一致하여가지고 新陳代謝를 할 새에는 無限히 創造的이 되는 까닭에 無期間的으로 流露할 수 잇는 것이다. 이럼으로 그새의 流露는 終熄되기가 어렵다. 이는 勿論 內的 生命이 外界와 流通하여 食物을 攝取함에서도 理由가 되엿겠지만은 그것이 外界와에 共通的 關係를 지음으로써 因하여 內外的 均衡을 作成함에 及하여 能動이 可能하게 된다. 이 能動은 創造的이다. 實相말이지 動物生命이 外具와 流動을 짓는 그 作用부터가 自發的이요, 創造的이다. 그런데 이 普遍的 均衡은 感情의 作用으로 됨보다 理性的 功勞로 된 것이다.

이럼으로 理性的 文明은 普遍的이요, 情的 文明은 個體的인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普遍的 文明은 無限한 源泉을 가졌슴으로 長久히 表現할 수 잇고 情的 文明은 有限的 또는 個體的인 까닭에 短期를 살고는 沒落할 것이다.

그러면 이 普遍的 均衡이란 것은 무엇일가? 이 普遍的 均衡은 固定된 것이 안이요, 늘 變動的 手段的이다 또는 傳達的이다. 작고작고 新陳代謝를 하라고 刮目하여 奔走히 多□的으로 □概하는 □時的 活動의 體系다. 병아리가 卵殼을 바꾸고 自由로 나와서 食物을 찾기 爲하여 여기저기서 勞作하는 것과 같겟다. 이럼으로 普遍的 文明이란 것은 情的 文明에서 解放을 어든 自由 文明이다. 自我가 情的 偏見이란 圈圍에서 버서난 公正世界에 온 大我다.